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

이 지 혜[†]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행동적 정서조절방략, 그리고 체험적 정서조절방략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기혼 남성 102명, 여성 131명으로 모두 233명이며, 부적응 도식 질문지, 정서조절방략 질문지(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 ERSQ),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인지적, 행동적, 체험적)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부적응 도식 영역마다 이 3가지의 정서조절방략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는데, 먼저 손상된 자율성과 타인 중심성의 부적응 도식 영역은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3가지 방략 모두에서 조절 효과를 보여, 이 3가지 방략들을 사용할수록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의 부적응 도식 영역을 지닌 개인의 경우 인지적, 행동적 방략을 사용할수록, 과잉 경계 및 억제적의 부적응 도식 영역을 지닌 개인은 인지적, 체험적 방략을 사용할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손상된 한계의 부적응 도식 영역을 지닌 개인은 체험적 방략을 사용할 경우에만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서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 도식, 결혼만족도, 정서조절방략, 조절효과

[†] 교신저자 : 이지혜, 성신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Tel : 02-862-2044, E-mail : wd0623@naver.com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가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가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부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의 능률이 오를 것이고, 결국 이는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결혼 만족도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은 비 이혼 가정 자녀보다 부적응 도식으로 인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았고, 이런 신념으로 인해 이성과의 애착관계 및 친밀감에도 영향을 준다(권은정, 2008 김미영, 1989). 결국, 현 세대의 결혼만족도는 후대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부의 이혼이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부부갈등이나 불만족한 부부 생활 및 부부 사이에 효과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함으로써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부부 관계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혼율이 1996년 이후 10년 만에 3배로 늘어나더니 2006년에는 결혼한 3쌍 중 1쌍 꼴로 이혼하였다(통계청, 2007).

이러한 이혼율 및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

먼저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해 살펴보면, 심리도식-중심 치료 이론에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도식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고 부른다(Young 1990). 즉, Young에 의하면,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며,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반복되고, 부적응적인 행동은 심리 도식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리도식 모델에서 밝혀진 18개의 심리도식은 각 주제에 따라 5개의 범주로 묶인다. 이 5개의 범주를 ‘심리도식 영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5개의 심리 도식 영역을 살펴보면,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로 구분된다.

첫째,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 and rejection) 영역의 핵심 특징은 자신의 안전, 안정감, 돌봄, 공감, 감정 공유, 수용, 존중 등에 대한 욕구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로 분리되어 있고, 냉담하고, 거절하고, 억제적이고, 외롭고, 폭발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고, 학대하는 전형적인 가족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 영역의 하위 도식은 다음과 같다.

유기/불안정(abandonment/instability) 도식은 중요 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신뢰롭지 못하다고 지각하며, 불신/학대(mistrust/abuse) 도식은 기회만 있으면 타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도식은 타인과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

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합/수치심(defectiveness/shame) 도식은 자신에게 결합이 있고 나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한다. 사회적 고립/소외(social isolation/alienation) 도식을 가진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영역의 핵심 특징은 타인으로부터 분리, 생존, 독립적인 기능,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잘못 지각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 및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밀착되어 있고,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과잉보호하고, 집 밖에서 유능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화해주지 않는 전형적인 가족 기원을 지니고 있다. 이 영역의 하위 도식은 다음과 같다.

타인 의존/무능감(dependence/incompetence) 도식은 타인의 확실한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유능하게 해낼 수 없다고 가정한다. 위협/질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도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으로 가정한다. 융합/미발달된 자기(enmeshment/undeveloped self) 도식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관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개별화나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 실패(failure) 도식은 실패했거나 성취 영역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셋째,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영역의 핵심 특징은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장기적인 목표 지향 등에서 결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 영역의

하위 도식은 다음과 같다.

특권의식/과대성(entitlement/grandiosity) 도식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수하며,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 훈련(insufficient self-control/self-discipline) 도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통제를 발휘하지 못하며, 좌절을 견뎌내지 못한다.

넷째, 타인-중심성(other-directedness) 영역의 핵심 특징은 남들에게 사랑과 안정을 받고 싶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며, 보복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구는 희생한 채 다른 사람의 소망, 감정,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대개 자신의 분노감이나 자연스러운 선호는 인식하지 못하고 억제한다. 이 영역의 하위 도식은 다음과 같다.

복종(subjugation) 도식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과도하게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 자기희생(self-sacrifice) 도식은 자신의 만족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애를 쓴다. 승인-추구/인정-추구(approval-seeking/recognition-seeking) 도식은 안정된 자기감을 발달시키는 것보다 타인에게 승인과 인정받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over vigilance and inhibition)의 핵심 특징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 충동,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윤리적인 행동이나 수행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로 인해 종종 행복감, 자기-표현, 이완된 휴식, 친밀한 관계, 신체적 건강 등을 희생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만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모

든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주의와 걱정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 영역의 하위 도식은 다음과 같다.

부정성/비관주의(negativity/pessimism) 도식은 삶의 긍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도식은 자발적인 행동, 느낌, 의사소통을 억제한다, 이는 비판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 충동조절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엄격한 기준/과잉 비판(unrelenting standards/hypercriticalness) 도식은 비판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punishment) 도식은 실수를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관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지속되는 주제들로 전 생애를 통해 정교화 되며 이로 인해 개인은 심한 부적응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Young, 1990).

실제로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에 연구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들이 관계 만족과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iles (2004)는 Young 도식질문지 단축형(YSQ-S, 1994)을 사용하여 초기 부적응 도식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이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drea

(2003)의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영역은 긍정적 정서 및 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Nemati(1996)의 결혼만족도의 구조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의존, 실패, 유기 도식 등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남편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eman(1998)의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모든 하위 도식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설적인 사고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모든 하위 도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시연(2008)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부적응 도식이 서로의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남편의 경우 아내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내가 남편의 초기 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 논문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관련된 연구들이 세부 하위 도식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시연, 2008)이나, 18개 도식 중 일부 도식만을 가지고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각 세부 주제별 부적응 도식 영역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정서조절과 결혼 만족

부부의 문제를 부적응 도식 외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서조절이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

해보면, 결혼 한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오다가 성인이 되어 이루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성격 등 여러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부부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격한 감정의 정서조절이 필요하다. 부부들이 부정적인 정서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혼생활의 적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조절에서의 손상과 실패가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초래하며(Eisenberg, Richard, Fabes, Bridget & Murphy 1995; Kring & Bachorowski, 1999), 내담자들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Fosha, 2000; Greenberg, 2002; Gross, 1999; Marra, 2005; Omaha,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또한, 정서조절장애는 인지적 기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Cole & Teti, 1994; Garber & Dodge, 1991; Kring & Werner, 2004)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병리 현상이 부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결국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의 부적응적 대인관계 특징은 성인기의 가장 친밀한 대인관계인 부부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Hinchcliffe Hooper, Roberts(1978)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낮은 사람들

과는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더 긴장하고, 부정적이며, 자기 몰입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을 나타내었다. 우울한 사람의 부부관계 손상은 의사소통 행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Ruscher & Gotlib, 1988).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은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우울한 정서표현(Hautzinger, Linden, & Hoffman, 1982; Ruscher & Gotlib,1988),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Linden, Hautzinger & Hoffman, 1983), 부정적 태도(Kowalik & Gotlib, 1987),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Hinchcliffe et al., 1978)는 더 많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Hops, Sherman, Arthur, Friedman, & Osteen., 1987)과 자기주장(Weissman & Paykel, 1974)은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승락, 권정혜, 1998, 재인용). 게다가 배우자의 우울이 배우자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지혜정, 2003)와 결혼만족도가 우울과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은정, 2001)는 우울과 결혼만족도가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관계 만족에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Baucom et al., 2002), 이에,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서조절 방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방략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방략은 정서의 어떤 측면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크게 인지적 방략과 행동

적 방략으로 구분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Parkinson & Totterdell, 1999; 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 또한, 최근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행동적, 인지적 접근의 커다란 두 가지 접근 관점에 체험적 접근을 추가하여 정서적 정보처리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Greenberg, Rice, & Elliot, 1993). 체험적 접근을 강조하는 심리치료자들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정서(emotion)와 과정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경험과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체험적 접근이 기존의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으로 충분히 설명하거나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이런 맥락에서 치료기법을 인지적, 행동적 방략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방식에서 체험적 방략(experiential strategy)을 추가하여 분류함으로써 체험적 기법을 강조하였다. Young 등(2003)이 행동적, 인지적, 체험적 방략의 세 가지 범주는 심리치료에 사용되어왔던 많은 치료기법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포괄하고 있다. 체험적 방략은 주로 정서적 체험을 통한 정서적인 이해, 재 경험 및 표현 등이 포함된다. Young 등은 심상기법과 역할 연기를 대표적인 체험적 방략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치료 장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서조절방략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연구로 최근 이지영과 권석만(2007)은 ERSQ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인지적, 행동적 방략의 이분법적 구분기준에 체험적 방략을 추가하여 정서적 체험 및 표현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략을 범주 내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서의 여러 측면 중 어떤 측면의 변화를 통해서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방략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 인지적 방략은 인지적 변화를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긍정적 재평가, 폭식하기 등이 있다. 둘째, 행동적 방략은 행동적 변화를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운동하기, 산책하기, 쇼핑하기, 도움청하기, 조연구하기 등이 있다. 셋째, 체험적 방략은 정서적 체험과 표현을 통해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서 자각하기, 다른 사람과 느낌 공유하기, 공감 받기, 즐거운 상상하기, 웃기, 소리 지르기 등이 있다. ERSQ는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가 안정적이고 적합한 모델로 확인됨을 보고하고 있다(이지영, 2008).

또한, ERSQ를 사용하여 정서조절방략과 부정적 정서, 정서장애 및 정신 병리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적응적인 방략과 적응적인 방략을 확인할 수 있다. 16가지 인지적 정서 조절 방략 가운데 인지적 방략 중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와 ‘타인 비난하기’, 행동적 방략의 ‘폭식하기’와 ‘탐닉활동하기’, 체험적 방략의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와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의 6개 방략이 부적응적인 방략으로 확인되었고, 인지적 방략의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행동적 방략의 ‘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와 체험적 방략의 ‘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와 ‘감정 수용하기’의 10개의 방략은 정서 조절에 효과가 있는 적응적인 방략으로 나타났다(이지영, 2010b; 이지영, 권석만, 2009c,

2010).

이와 같은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 방략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험하는 정서 강도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 적 방략을 자주 사용하고, 특히 회피적인 방략을 자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과(이지영, 2009; Marra, 2005; Westen, 1994)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이 정신 병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정신 병리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지영, 2010).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행동적 정서조절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즐거운 상상하기)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정서조절방략의 내용 중에서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및 체험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한 개인의 우울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9).

연구 문제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정서 조절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 병리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 및 정신 병리 현상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주므로, 결국 정서조절이 결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정서 조절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정서 조절 방략이 개인의 적응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 건강 및 정신 병리 영역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서조절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식-중심 치료 이론에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핵심인 부적응 도식과의 관련성이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세부 하위 도식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시연, 2008)이나, 초기 부적응 도식의 의존, 유기 도식 등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Nemati, 1996)와 같이 18개 도식 중 일부 도식만을 가지고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각 세부 주제별 부적응 도식 영역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주제별 5가지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한계, 손상된 자율성, 과잉 경계 및 억제, 타인 중심성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어떤 영역의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도와 보다 더 관련 있는지 알아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 심리 치료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관점(인지적, 행동적, 체험적)을 포함하고, 다양한 정서조절 방략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서조절방략 질문지(ERSQ)를 사용하여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방략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어떤 형태의 정서조절방략이 각 부적응 도식의 영역과 관련해서 더 효과적인지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적응 도식 영역에 따라 어떤 정서조절방략이 더욱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거리 설문과 대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이나 교회 혹은 특정 기관에서 기혼자를 대상으로 총 300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 254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 하게 응답한 자료 21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남성 102명, 여성 131명으로 모두 233명이 표집 되었다. 연령은 20대 (24명), 30대 (55명), 40대 (69명), 50대(80명), 60대 이상(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4.44이었다. 자녀수는 무자녀(45명), 자녀 1명(33명), 자녀 2명(121명), 자녀 3명 이상(34명)이었으며, 결혼 기간은 1년-10년(78명), 11년-20년(55명), 20년-30년(100명), 30년 이상(13명)이었다.

측정 도구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본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Snyder (1979)가 다차원 척도로 개발한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와 그 개정판(Douglas & Snyder, 1991)을 기초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권정혜, 채규만(199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 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한다. 이는 160문항이며, 결혼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인 분위기를 말해주는 지표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22문항을 사용 하였고, 내적합치도는 .94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YSQ-Short form)

Young(1990)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식질문지의 단축형을 이미엘(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15개의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식별로 5문항씩,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chmidt, Young & Telch, 1995). 6점 척도로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 지 선택하도록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도식 영역에 포함된 15개의 각 요인들은 단절 및 거절 영역 (정서적 박탈, 유기/불안정, 불신, 사회적 고립, 결합/수치심),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영역(실패, 의존, 해 또는 병에 대한 취약성, 비분리), 타인 중심성 (복종, 자기희생),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정서적 억압, 절대적 기준, 손상된 한계 영역(자기 우월, 불충분한 자기 통제)이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조성호의 연구(2001)에서도 .75-.9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부적응 도식의 내적합치

도가 .96로 나타났으며, 5가지 영역 중 단절 및 거절 영역이 .95, 손상된 자율성 영역이 .92, 손상된 한계 영역이 .80, 타인 중심성 영역이 .81,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이 .81이었다.

정서조절방략 질문지(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 ERSQ)

이지영과 권석만(2007)이 개발한 정서조절방략 질문지(ERSQ)는 개인의 정서조절방략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총 69문항으로 구성되고 인지적 방략 5개, 체험적 방략 5개, 행동적 방략 6개를 측정한다. 제시된 문항의 내용에 대해 평소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보이는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16개의 정서조절방략은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의 5요인과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감정 수용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감정 표현하고 공감 얻기’의 5요인과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폭식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 ‘탐닉 활동하기’의 6요인이다. 이 중, 적응적인 인지적 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적응적인 행동적 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 적응적인 체험적 방략(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 감정 수용하기)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지영과 권석만(2007)의 연구에

서 나타난 내적합치도가 인지적 방략이 .81, 행동적 방략이 .85, 체험적 방략이 .77이었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68, .78,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가 적응적인 인지적 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이 .86, 적응적인 행동적 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이 .90, 적응적인 체험적 방략(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 감정 수용하기)이 .81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위 변인들(부적응 도식, 정서조절 방략, 결혼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적응 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각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인지적 방략, 행동적 방략, 체험적 방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부적응 도식, 정서조절 방략, 결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인은 결혼만족도 척도이며, 이들 부적응 도식 영역 중 결혼만

표 1. 부적응 도식, 정서조절방략,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1	1-2	1-3	1-4	1-5	2-1	2-2	2-3
1-1 단절 및 거절								
1-2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756***							
1-3 과잉경계 및 억제	.547***	.482***						
1-4 손상된 한계	.517***	.513***	.572***					
1-5 타인 중심성	.575***	.623***	.594***	.411***				
2-1 적응적 인지적 방략	-.187*	-.203*	.069	-.036	-.019			
2-2 적응적 행동적 방략	-.310**	-.308**	-.089	-.119	-.132*	.578**		
2-3 적응적 체험적 방략	-.164*	-.172**	.061	.070	-.027	.654**	.743**	
3 결혼 만족	-.456***	-.405***	-.223**	-.304***	-.271***	.127	.231	.109

* $p < .05$ ** $p < .01$ *** $p < .001$

족도와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 5개의 도식 영역과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 도식은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적응 도식의 어떤 요인이 결혼 만족도와 더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적응 도식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1 단절 및 거절, 1-2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1-3 과잉경계 및 억제, 1-4 손상된 한계, 1-6 타인 중심성 5개의 부적응 도식 영역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 간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즉, 부적응 도식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이들 간의 상호

작용 변수인 ‘부적응 도식 *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부적응 도식은 15가지 하위 도식을 포함하는 주제별 영역 5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도식 영역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도식영역 각각과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은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절 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의 조절효과를 보면, 부적응 도식 하위 영역 중, 손상된 한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고, 단절 및 거절($R^2=.213$),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R^2=.171$), 과잉 경계 및 억제($R^2=.073$), 타인 중심성($R^2=.132$) 4개의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표 2).

표 2.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종속 변인	하위 도식	예측 변인	R ²	ΔR ²	B	β	F
결혼 만족	단절 및 거절 영역	단절 및 거절 (A)	.208	.205	-.039	-.192	60.678***
		적응적 인지 방략 (B)	.210	.203	.225	.194	30.543***
		A * B	.213	.202	-.018	-.277	20.631***
결혼 만족	손상된 한계	손상된 한계 (A)	.092	.088	-.047	-.222	23.507***
		적응적 인지 방략 (B)	.106	.098	.201	.172	13.625***
		A * B	.106	.094	-.006	-.095	9.070
결혼 만족	손상된 자율성 영역	손상 자율성 (A)	.164	.160	-.008	-.034	45.255***
		적응적 인지 방략 (B)	.166	.159	.334	.287	22.884***
		A * B	.171	.161	-.030	-.397	15.789***
결혼 만족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과잉경계 및 억제 (A)	.050	.046	-.092	-.471	12.075**
		적응적 인지 방략 (B)	.070	.062	-.044	-.038	8.682***
		A * B	.073	.061	.016	.314	6.017**
결혼 만족	타인 중심성 영역	타인 중심성 (A)	.073	.069	-.041	-.181	18.267***
		적응적 인지 방략 (B)	.088	.080	.320	.275	11.134***
		A * B	.132	.121	-.016	-.272	11.604***

p*<.05 *p*<.01 ****p*<.001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간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즉, 부적응 도식과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 이들 간의 상호작용 변수인 ‘부적응 도식 *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부적응 도식은 15가지 하위 도식을 포함하는 주제별 영역 5가지로 나누어 실

시하였으며, 도식 영역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도식영역 각각과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은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절 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의 조절효과를 보면, 부적응 도식 하위 영역 중, 손상된 한계와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고, 단절 및 거절($R^2=.220$), 손상된

표 3.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종속 변인	하위 도식	예측 변인	R ²	ΔR ²	B	β	F
결혼 만족	단절 및 거절 영역	단절 및 거절 (A)	.208	.205	.042	-.241	60.678***
		적응적 행동 방략 (B)	.217	.210	.157	.239	31.857***
		A * B	.220	.210	.015	-.201	21.519***
결혼 만족	손상된 한계	손상된 한계 (A)	0.92	.088	-.060	-.285	23.507***
		적응적 행동 방략 (B)	.131	.123	.188	.193	17.319***
		A * B	.131	.120	.000	.006	11.496
결혼 만족	손상된 자율성 영역	손상 자율성 (A)	.164	.160	-.046	-.191	45.255***
		적응적 행동 방략 (B)	.176	.169	.262	.269	24.611***
		A * B	.179	.168	-.016	-.201	16.624***
결혼 만족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과잉경계 및 억제 (A)	.050	.046	-.045	-.232	12.075**
		적응적 행동 방략 (B)	.095	.087	.181	.186	12.019***
		A * B	.095	.083	.002	.038	7.984
결혼 만족	타인 중심성 영역	타인 중심성 (A)	.073	.069	-.097	-.424	18.267***
		적응적 행동 방략 (B)	.112	.104	.030	.031	14.519***
		A * B	.115	.103	.014	.235	9.880***

* $p < .05$ ** $p < .01$ *** $p < .001$

자율성과 수행($R^2=.179$), 타인 중심성($R^2=.115$) 3개의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표 3).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간 관계에서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즉, 부적응 도식과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 이들 간의 상호작용 변수인 ‘부적응 도식 *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부적응 도식은 15가지 하위 도식을 포함하는 주제별 영역 5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도식 영역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고려하여, 도식영역 각각과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은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절 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 감정 수용

표 4. 부적응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종속 변인	하위 도식	예측 변인	R ²	ΔR ²	B	β	F
결혼 만족	단절 및 거절 영역	단절 및 거절 (A)	.208	.205	-.018	-.432	60.678***
		적응적 체험 방략 (B)	.209	.202	.056	.047	30.433***
		A * B	.209	.199	.000	-.021	20.203
결혼 만족	손상된 한계	손상된 한계 (A)	0.92	.088	-.132	-.629	23.507***
		적응적 체험 방략 (B)	.109	.102	-.135	-.114	14.133***
		A * B	.115	.103	.024	.419	9.902***
결혼 만족	손상된 자율성 영역	손상 자율성 (A)	.164	.160	-.015	-.245	45.255***
		적응적 체험 방략 (B)	.165	.158	.181	.152	22.797***
		A * B	.167	.156	-.004	-.176	15.261***
결혼 만족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	과잉경계 및 억제 (A)	.050	.046	-.113	-.580	12.075**
		적응적 체험 방략 (B)	.065	.057	-.189	-.159	7.971***
		A * B	.071	.059	.025	.469	5.842**
결혼 만족	타인 중심성 영역	타인 중심성 (A)	.073	.069	-.111	-.487	18.267***
		적응적 체험 방략 (B)	.084	.076	-.081	-.068	10.505***
		A * B	.086	.074	.018	.278	7.172***

p*<.05 *p*<.01 ****p*<.001

하기)의 조절효과를 보면, 부적응 도식 하위 영역 중, 단절 및 거절 영역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고, 손상된 한계($R^2=.115$),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R^2=.167$),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R^2=.071$), 타인 중심성($R^2=.086$) 4개의 부적응 도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논 의

본 연구는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행동적 정서조

절방략, 그리고 체험적 정서조절방략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기혼 남성과 여성 233명으로 부적응 도식 질문지, 정서조절방략 질문지(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 ERSQ),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 도식, 정서조절 방략(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을 본

결과, 결혼만족도와 부적응 상관을 보인 하위 영역은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과잉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 타인 중심성, 5개의 부적응 도식 영역 모두가 선택되었다. 이는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가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이 친밀감에 부적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tiles, 2004) 및 초기 부적응 도식의 의존, 유기 도식 등은 결혼만족도와 부적응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Nemati, 1996)와 일치한다. 이는 생애 초기에 유해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부적응 도식이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초기에 형성된 도식을 활성화시키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매우 부적응적인 행동 반응을 하여 부부관계를 악화시켜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D'Andrea, 2003; Freeman, 1998; Nemati, 1996; Stiles, 2004). 또한 부적응 도식은 불쾌한 정서, 회피반응,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때, 부부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사고와 대처방식을 유발하여 부부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 회귀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조절된다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 도식 영역으로 손상된 한계를 제외한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과잉 경계 및 억제, 타인 중심성이 선택되었다. 즉, 이 4가지 영역의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할 경우 보다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방략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이지영(2009)의 선행 연구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이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정미현(2008)의 선행연구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이 결혼만족도와 관계성을 입증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배우자의 우울이 배우자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부적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지혜정, 2003)와 결혼만족도가 우울과 부적응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은정, 2001)는 우울과 결혼만족도가 서로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이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은 보다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으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한 개인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한 개인 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감소된 부정적 정서는 더 높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정신 병리와 부적응 관련되어 있다(이지영, 2010; 이지영, 권석만,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능동적인 사고방략은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러한 정서가 유발된 과정이나 원인을 이해하려 하고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여 극단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잊어버리고 회피하면서 다른 일로 주의를 전환하거나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되뇌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사고 방략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사소한 일에도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불쾌한 감정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결혼 생활에서 적응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상된 한계 영역에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손상된 한계 영역의 핵심 특징은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장기적인 목표지향 등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는 사고방식이기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고, 타인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도식으로 부부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손상된 한계 영역에 포함되는 부적응 도식 때문에 부부들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인지적인 정서조절방략보다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체험적인 정서조절방략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 회귀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에 따라 조절된다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 도식 영역으로 손상된 한계와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을 제외한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타인 중심성이 선택되었다. 즉, 이 3가지 영역의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이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할 경우 보다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인 행동적 방략 중,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등의 지지 추구적인 행동적 방략과 ‘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적 방략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강한 부정적인 정서 강도를 낮춰주는 효과적인 방략이다(이지영, 2009; Marra, 2005; Westen, 1994). 특히, 적극적인 행동적 방략은 개인이 처한 감정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직접 접근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성격의 정서조절 방략으로서, 정서조절 곤란 수준을 낮추는 데 주의 분산적 방략인 인지적인 방략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략으로 나타났다(이지영, 2010).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인지 활동 지향 행동(사색하기, 음악 듣기 및 영화 보기와 같은 기분전환 활동), 대인 관계 지향 행동(친구, 가족과의 대화, 상담)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동적인 적응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이명선, 1985). 한편,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타인 중심성 영역에 포함되는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은 이 영역들의 주제와 관련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더 자주 느끼고, 정서조절을 해야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데, 적응적인 행동적 조절방략(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은 이런 개인들에게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2가지 도식 영역(손상된 한계, 과잉 경계 및 억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가지 영역 중 손상된 한계 영역의 경우, 특권도식/과대성 도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식을 지닌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과 협동하지 못하며, 타인과 현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개인은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와 같은 타인 지향적이고, 지지 추구적인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이 방략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할 경우에도 심리적 불편감을 적절히 해소하고, 높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손상된 한계 영역의 하위 도식인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 훈련 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나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불편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도식이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자기 통제 능력과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 해결 행동 취하기와 같은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더라도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높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손상된 한계 영역의 도식을 지닌 개인은 효과적으로 나타난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과잉 경계 및 억제의 부적응 도식 영역에 해당하는 심리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며, 융통성이 부족한 경직된 내면의 규칙을 지니고 있어, 행복감이나 자기표현, 느긋한 휴식, 친밀한 인간관계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몰아세운다. 이 심리 도식을 지닌 개인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도록, 삶을 매서울 정도로 힘든 것이라고 여기도록 배웠으므로, 대개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으며,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져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조언이나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전환 활동하기와 같은 타인 지향적 및 지지 추구적이며,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방략들을 사용하더라도 심리적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고, 높은 결혼만족도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에 포함된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들은 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난

적응적인 인지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시사된다.

넷째,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도 유의미했다. 회귀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 도식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즐거운 상상하기,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 얻기, 감정 수용하기)에 따라 조절된다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 도식 영역으로 단절 및 거절 영역을 제외한 손상된 한계, 손상된 자율성, 과잉 경계 및 억제, 타인 중심성이 선택되었다. 즉,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할 경우, 위에 언급한 4가지 영역의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이 보다 더 높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이 심리치료 장면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불쾌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정서조절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이지영, 2010; Greenberg, 2002, Marra, 2005). 즉, 개인이 겪고 있는 부정적 감정 등의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서를 알아차리고 체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쾌한 감정이나 충동을 느끼고 표현하는 체험적 방법의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카타르시스 이론에 의해 지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운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이 적응적인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체험하며,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런 부정적 감정의 감소는 높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절 및 거

절 영역의 도식을 지닌 개인에서는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거부 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임유경(2011)의 연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거부를 당했을 때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지나친 편향된 부호화와 신념은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도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도식과 신념을 지닌 개인들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도식을 지닌 개인은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할 것으로 보여,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이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병인론적 도식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인지치료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부적응 도식 중 어떤 도식이 각각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조절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로 각 도식을 지닌 개인에게 적절한 정서조절방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임상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임상 장면에서 각 영역의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가지고 심리치료에 접근한다면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손상된 한계 영역에 포함되는 부적응 도식 때문에 부부들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정서조절방략,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도식을 지닌 개인은 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정서조절방략, 과잉 경계 및 억제 영역에 포함된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들은 적응적인 인지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시사된다. 그밖에 손상된 자율성과 타인 중심성 영역에 포함되는 부적응 도식을 지닌 개인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3가지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략을 사용할 경우 모두 효과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 도식, 정서조절방략, 결혼 만족도 모두 피험자들의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 되었다.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들이기는 하지만, 피험자들의 반응태도에 의해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리도식은 추상적이고 쉽게 의식하기 힘든 인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대상자가 서울 소재 기혼자들이며 표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일반화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부부 단위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므로, 검증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시사되며, 추후 연구에서 부부

단위 자료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도식을 각 주제별로 구분된 5가지 영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하위 도식들을 토대로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3가지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 방략의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추후에 좀 더 세부적인 정서조절방략 사용의 남녀 차이를 구분하여 결혼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방략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추후에 연령과 결혼 기간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부적응 도식을 주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종 오류의 증가 및 변인 간 상대적 크기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에 전체 도식 영역을 모두 함께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외 공역 (2005).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 권은정 (2008) 이혼가정 대학생 자녀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 친구에 대한 친밀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영 (1999). 결손 가정학생과 정성가정학생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 경상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시연 (2008). 부적응 도식 및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의 관계: 부부 지지의 매개 및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선 (2006).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심리 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선 (1985). 20대 여성의 우울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과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열 (2005).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1). 분리 경험, 애착, 결혼만족이 기혼 여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 (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사소통과 결혼만족의 관계. 가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7). 정서조절방략 질문지의 개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6(4), 963-967.
- 이지영 (2008).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장애의 관계 및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영 (2009). 정서장애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8(1) 245-261.
- 이지영 (2009). 정서강도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8(4) 1217-1226.
- 이지영, 권석만 (2010).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한국 상담심리 2권(1)
- 이지영 (2010). 정서조절방략이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9(3)
- 임승락, 권정혜 (1998).우울증상이 부부간의 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
- 임유경 (2011).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미현 (2008).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88.
- 지혜정 (2003). 결혼만족에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규련 (1988).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6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nso.go.kr>
- 한혜영 (2004).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 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com, D. H., Epstein, N., & Lataillade, J. J. (2002).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Gurman, A. S., & Jacobson, N. S.(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26-58).Guilford Press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73-100).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 Eisenberg, Richard A., Fabes., Bridget C., & Murphy (1995) Relations of Shyness and Low Sociability to Regulation and Emotionality, Original Research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05-517.
- Fosha, D. (2000).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Basic Books.
- Garber, j., & Dodge, K. (1991).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and Emotion*, 13(5), 551-573.
- Hautzinger, M., Linden, M., & Hoffman, m N. (1982). Distressed couples with and without a depressed partners: An analysis of verbal interactio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13, 307-314.
- Hinchcliffe, M., Hooper, D., & Roberts, F. J. (1978). *The melancholy marriage*. New York: Wiley.
- Hops, H., Biglan, A., Sherman, L., Arthur, J., Friedman, L., & Osteen, V. (1987). Home observations of family interaction of depressed woma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41-346.
- Kowalik, D. L., & Gotlib,, I. H. (1987). Depression and marital interaction: Concordance between intent and perception of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27-134.
- Kring, A, M., & Bachorowski, J. (1999). Emotions and psychopathology. *Cognition and Emotion*, 13(5), 575-599.
- Kring, A. M., & Werner, K. H. (2004).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In P. Philippot, & R. S. Feldman(Ed.). *The regulaion of emotion* (pp.359-38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rra, T. (2005).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 Private Practice*. New Harbinger Publications.
- Nemati, M. C., (1996).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b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Omaha, J. (2004).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motion regulation: EMDR and bilateral stimulation for affect managemen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Ruscher, S. M., & Gotlib, I. H. (1988). Marital interaction patterns of couples with and Without a depressed partner. *Behavior therapy*, 19, 455-470.
- Schmidt, N. B., Jiner, T. E., Jr., Young, J.,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321.
- Southam-Gerow & Kendall (2002). Emotion regulation and understanding: implications for child psychopathology and therapy Original Research Artic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 189-222
- Stiles, T. C., & Goresta, K. G. (1989). The role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in the development of dysphoric mood: An analogue experi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161-170.
-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Weissman, M. M., & Paykel, E. S. (1974). *The depressed woman: A study of social relationship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sten, D. (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62, 641-667.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논문투고일 : 2011. 12. 27.
1차 심사일 : 2012. 1. 2.
2차 심사일 : 2012. 3. 21.
게재확정일 : 2012. 4. 19.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justment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Ji-Hye Lee

Paul Kyu-man Cha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experienti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each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justment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moderating effects for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ladjustment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 showed the selection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Other-Directedness',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as maladjustment schema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via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at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Other-Directedness' as maladjustment schema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via behavioral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that of 'Impaired limits', '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 'Other-Directedness', 'Overvigilance and Inhibition' as maladjustment schema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via experiential regulation strategy.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maladjustment schema, marital satisfact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oderating effect